



남원시, 전북 소방공무원 심신 수련 힐링 프로그램

남원시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전북도 소방공무원 27명을 대상으로 '소방공무원 심신 수련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올해 세 번째로 열린 행사로, 남원시는 지난해(2024년) 처음으로 총 4회에 걸쳐 80명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 이후, 올해도 소방공무원의 심신 회복과 재충전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참가자들은 △전통 무예 체험 △남원 명소 탐방 △구룡폭포 등반 △남원 예천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남원시는 올해 소방공무원 심신수련 힐링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전국 초등학교생 1,000여 명이 참여한 '소방안전캠프'를 성공적으로 운영했으며, 연내에는 소방공무원 가족을 위한 힐링캠프도 추진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산내면 공무원, 산내면 지사협에 TV기부

남원시 산내면 행정복지센터(이성근 면장)는 지난 11월 3일 취약계층을 위해 산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TV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서 주무관은 11월 1일 실시된 제4회 지리산 도토리골 로컬푸드 축제 현장 지원 중 경품 추첨 상품으로 TV가 당첨되었으며 이를 협의체에 기부했다.

서 주무관은 2025년 임용된 후 올 9월 산내면 행정복지센터로 전입 근무를 시작, 평소 취약계층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협의체 특화사업인 홀몸어르신 생신방상 차려드림, 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참여하는 등 열정적인 활동 모습을 보여 온 내내기 공무원이다.

한편 이번에 기부된 TV는 관내 청소년 방과 후 활동단체인 톨루탈라에 전달 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 퇴직공무원, 고향에 이웃돕기성금 100만원기탁

김제시 광활면 행정복지센터는 4일 고향 출신으로 공직생활을 마친 김용배 전교원동장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시에서 오랜 기간 공직에 몸담은 뒤 퇴직한 그는 고향인 광활면으로 돌아와 보리·벼농사를 지으며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이번 성금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영농 수익금을 지역에 환원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배 씨는 "공직에 있을 때 많은분들의 도움으로 근무할 수 있었고, 퇴직 후에도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며 늘 감사한 마음을 느낀다"며 "작지만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따뜻한 소감을 전했다.

한편 기탁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 후 광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관내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친환경 흡착소재 개발...기름 유출 한번에 해결

전북대 남창우 교수팀, 흡유 성능 5배 향상 · 야간 식별 · 신속 회수까지... 원유 100% 재생 성공

전북대학교 남창우 교수(공대 유기소재섬유공학과) 연구팀이 차세대 친환경 흡착 소재를 개발, 세계적 권위의 재료 분야 학술지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Impact Factor 19)에 최신 성과를 게재했다.

제1저자인 석사과정 최영민 학생과 석·박사통합과정 강진혁 학생은 이번 연구로 연구 역량을 입증했다.

4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번 연구 성과는 기존 폴리프로필렌 기반 흡착제가 대규모 화학·석유 오염사고 시 방제 효율이 낮고 회수·처리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문제를 극복, 친환경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한 성과로 주목된다.

연구팀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폴리올레핀 엘라스토머에 물리적 패턴을 다양하게 도입하고 흡수 거동을 정밀 분석해, 기존보다 빠른 속도로 다량의 오염물을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흡유 메커니즘을 구현했다.

그 결과 기존 대비 5배 이상 향상된 흡유 성능을 확보했으며, 형광과 자성을 부여해 야간 식별 및 신속 회수도 가능하게 했다.

또한 정유 공정과 유사한 회수 과정을 통해 흡착된 원유를 100% 재생할 수 있어 친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갖춘 혁신적 소재로 평가된다.

이번에 개발된 소재는 해양 기름 유출 등 대형 환경



남창우 교수



최영민 학생



강진혁 학생

재난 현장에서 기존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거 작업이 가능하고, 원유 재생을 또한 100%에 달해 자원 순환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부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탄소중립과 그린 에너지 전환 정책과 맞물려 상용화 가치가 매우 높다.

남창우 교수는 "박사과정 시절부터 구상해 온 아이디어를 대학원생들이 실제로 구현해 줬 매우 기쁘다"며 "이번 성과를 계기로 고분자 및 지속가능 소재 분야에서 더 많은 연구 결실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영민 석·박사통합과정생은 "학부 시절부터 이어온 연구가 좋은 성과로 이어져 감사하다"며 "교수님의 세심한 지도를 받으며 '좋은 연구와 논문이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NH투자증권, '천원의 아침밥' 지원 위해 1500만원 기부

전북대학교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NH투자증권이 1,500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하며 대학의 끼임은 사업에 동참했다.

4일 전북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4시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NH투자증권 중서부 본부장 조영래 상무 등 관계자를 초청해 발전기금 기증식을 열고 감사패를 전달했다.

NH투자증권은 1969년 설립 이래 전 사업 부문에서 탁월한 경쟁력을 인정받은 종합금융투자회사로, 전국 57개 영업망을 통해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전주 WM센터는 2001년 개점 이후 전북 지역 대표 증권사로 자리매김하며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해 고객 만족을 실현해왔다.

기부금은 전북대 학생들에게 따뜻한 아침 한 끼를 제공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NH투자증권 중서부 본부장 조영래 상무는 "밥이 보약이라는 말처럼, 아침밥은 곧 미래와 성장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며 "학생들이 건강한 식사를 통해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고 꿈을 키워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기부를 통해 전제하는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이 전북대 학생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북대학교와 함께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양오봉 총장은 "이번 기부는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과 건강한 캠퍼스 문화 조성에 큰 힘이 되는 귀한 나눔"이라며 "NH투자증권의 따뜻한 후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부금은 학생 복지를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장은성 기자



구천동농협, 제1회 구천동농협장배 파크골프대회 개최

구천동농협(조합장 김성곤)은 4일 목정공원 파크골프장에 서 무풍, 설천 파크골프클럽 회원들을 대상으로 '제1회 구천동농협장배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했다.

구천동농협(조합장 김성곤)이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선수 110여명을 비롯해 내빈과 진행요원, 클럽회원 등 120여명이 참여해 지역 파크골프인들의 높은 관심과 열기를 보였다.

이번대회는 구천동농협이 처음으로 개최한 구천동농협장배 대회로 '조합원 동호인이 모두가 즐기는 생활체육의 장'이라는 취지 아래 열렸다.

김성곤 조합장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파크골프를 세대간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체육 종목으로 육성한다"며 "무풍, 설천 클럽회원간 친목도모 및 건전한 여가 활동과 건강관리는 물론 회원 상호간 소통을 통해 동호회 발전과 농업발전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우주=전문선 기자



정읍경찰, 내장산 단풍철 맞아 교통관리 · 안전홍보

정읍경찰서(서장 박상훈)는 내장산 가을 단풍철을 맞아 교통질서 유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읍경찰서는 10월 말부터 내장산 일일 주요 도로와 주차장 주변에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 등을 집중 배치하였으며 방문객들에게 안전수칙 홍보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버스 이용객들에게는 안전벨트 착용하도록 강조하고, 운전자들에게는 졸음 운전 방지와 5대 반칙운전 근절, 안전 운전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검산동 지사협, 저소득 독거노인에 반려식물 지원

김제시 검산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조기심)가 4일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 50세대를 대상으로 반려식물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인 세대의 고립감, 우울감 등 정서적 문제를 해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식물 돌봄'의 심리적 치유 효과에 주목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추진하게 됐다.

특히 어르신들이 직접 식물을 가꾸는 과정에서 생명과 교감하며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뿐만 아니라 키우는 과정에서 매일 물을 주고 잔가지를 정리하는 등 작은 과제들을 수행하면서 성취감도 느낄 수 있어 정신건강 증진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